

3838억 들인 전남개발공사 관광사업 매출 296억에 적자 374억

전남도 16개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심각한 적자현황

수요 감소 안고 무분별 설립...보조·출연금 없인 운영 못해
자체수입 없고 불황 겹쳐...경도골프장 금융부채만 1985억

올해 전남도 16곳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구조를 분석하면 국·도비·시군비로 구성된 보조금과 전남도의 출연금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체 수입이 적어 의존 재정을 꾸리면서도 적자를 보는 구조다.

전남개발공사의 경우 토지분양이 정체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관광사업의 적자가 쌓여가면서 향후 심각한 경영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관은 사업 및 인력 구조조정이나 매각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큰 폭의 구조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협박 매각 논란도 불가피해 전남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수요 감소 없이 무분별 설립...의존적 재정구조=16개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지난 2005년 이후 설립된 곳은 중소기업지원센터(2007), 정보문화산업진흥원(2008), 전남문화예술재단(2009), 청소년미래재단(2009), 녹색에너지연구원(2009), 환경산업진흥원(2012), 전남복지재단(2013) 등 모두 7곳에 달하고 있다. 이들 7곳 가운데 2곳을 제외한 5곳이 지난 2013년 적자를 기록했다.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보조금과 출연금인데도 손실을 볼만큼 자체 수입이 적고 조치가 방만하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전남테크노파크의 경우 2011년 64억 8300만원의 적자를 본 뒤 2012년 62억 2400만원으로 주춤했다가 2013년 85억 31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전남도와 시군으로부터 17억9700만원의 출연금, 대행사업비로 국비 등 235억1900만원을 받지만, 자체 수입은 38억6100만원에 불과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전남테크노파크는 대책으로 순천과 보성의 신소재센터와 고흥의 고분자센터를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적자 규모를 줄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나주 식품산업연구원 등 산하에 7개의 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는 생물산업진흥원 역시 올해 전남도 출연금 34억8900만원, 시군 출연금 19억4800만원에, 국비 5억원, 도비 2억5000만원, 시군비 8억원의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당기순손실은 지난 2012년 87억9800만원에서 2013년 120억90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13년 20억6300만원의 순이익을 남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015년 36억8700만원의 예산 가운데 보조금 10억6200만원, 전남도 출연금 23억5000만원을 제외한 자체수입은 고작 2억원에 불과하다.

녹색에너지연구원(-10억3000만원), 중소기업지원센터(-7억7200만원), 신용보증재단(-16억7200만원), 여성플라자(-7800만원), 청소년미래재단(-1600만원), 순천의료원(-21억2300만원), 강진의료원(-3억2500만원), 남도장학회(-3억9600만원) 등도 지난 2013년 모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 2012년과 2013년 각각 설립된 환경산업진흥원과 전남복지재단을 제외하면 당기순이익을 낸 기관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23억6300만원)과 전남문화예술재단(12억9700만원) 뿐이었지만 이들 기관 역시도 예산의 상당부분을 출연금과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4000억원 투입됐지만 빛만 쌓이는

관광=최근 사장이 바뀐 전남개발공사의 내부 사정은 심각한 수준이다. 먼저 1465억원과 532억원 등 모두 1997억원이 투입된 장흥산업단지(291만4000㎡)와 강진산업단지(65만7000㎡)의 목표 대비 분양 실적은 고작 9.6%에서 멈췄다.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오희지구의 경우 1~3단계 528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최근 경기를 감안할 때 분양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공사 측은 일단 1단계 사업 대상지 가운데 공동주택용지 6필지 23만3000㎡를 선분양하고 분양결과에 따라 2단계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더 큰 문제는 관광사업장이 안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조성된 여수 경도 등 6개 사업장에 투입된 금액은 모두 3838억6700만원. 그러나 이들 사업장의 누적 매출은 투자 대비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296억6600만원에 영업누적적자 144억2400만원, 경산누적적자 374억7100만원을 보이고 있다. 여수경도와 오희지의 경우 금융부채도 각각 1985억원, 250억원에 달한다.

전남개발공사는 이들 관광사업장을 상환기 중 매각을 전제로 사업 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적자가 쌓이는 사업장을 제 값 받고 팔기는 불가능해 매각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업무보고에서 전남개발공사는 "개발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대체할 신규 사업이 없어 2012년을 정점으로 매출규모가 감소 추세에 있다"며 "거래 부진 및 시장 침체가 예상되며 사업 분야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개발공사 관광사업장 재정 현황 (2014년 3분기까지, 단위:100만원)

구분	여수경도 (2012~)	오희지 (2012~)	영산재 (2011~)	망골호텔 (2010~)	거북선 (2008~)	골프연습장 (2011~)	합계
총투입비	320.237	27.474	11.047	8.531	3.948	12.630	383.867
금융부채	198.500	25.000					223.500
매출액	16.053	2.969	2.406	3.464	515	4.259	29.666
영업이익	-6.776	-1.537	-2.370	-3.125	-2.084	1.468	-14.424
경상이익	-23.386	-4.584	-3.177	-4.584	-2.286	546	-37.471

1년 만에 2.8%p 급증...작년 전남 청년실업률 첫 10%대 기록

전남지역 청년실업률이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10%대를 기록해 '청년 실업'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남도와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청년(15~29세)실업률은 10.0%로 통계청이 통계를 작성한 지난 2000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남지역 청년실업률은 2008년 7.3%, 2009년 5.4%, 2010년 7.0%, 2011년 7.2%, 2012년 5.9%, 2013년 7.2% 등과 비

교해 '월등히' 높은 것이어서 사회문제화 되는 청년실업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고 있다. 2014년을 제외하고 최근 10년동안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00년 8.8%였다.

전남지역 청년실업자 수도 2010년과 2011년, 2012년 각 6천명이던 것이 2013년 7000명으로 증가해 2014년 1만명을 돌파했다.

한편 전남도는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 오

는 2018년까지 4년간 청년 일자리 2만개 창출을 목표로 제시했다.

도는 4년 동안 총 1조5000억원을 투입해 ▲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기업유치 등 1만3400개) ▲ 빈 일자리 채우기(일자리 수요·공급 불일치 해소 등 2570개) ▲ 틈새 일자리 창출(사회복지·육아 등 4천30개)을 하기로 하고 128개 사업을 추진해 청년 일자리 2만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호남선 KTX 시내전역 경유 안된다” 광주시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간호사회 회원들이 29일 광주 송정역앞에서 “지속철 전략 불러오는 KTX서내전역 경유를 반대한다”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백화점 명품코너 서너개 늘려 수도권 '쇼핑 역류' 막겠다고?

광주시 KTX 개통 종합대책 단순 프로그램만 나열

광주시가 호남고속철도(KTX) 개통을 앞두고 교통체계와 문화관광, 도심환경 개선, 유통·쇼핑, 의료 등 종합대책을 내놴다. 하지만 시내버스 노선 증설이나 광역차 편성 등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쳐 KTX개통 효과는커녕 수도권으로 광주의 경제가 빨려드는 '역류 현상'이 극대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광주시의 대책 대부분이 KTX 개통 이후에야 추진될 예정이어서 준비 소홀에 대한 비난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29일 운영현 시장 주재로 'KTX 개통대비 종합대책 토론회'를 열고 5개 분야 37개 과제별로 그동안 추진 상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앞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교통 대책으로 상무22번 노선을 신설하고, 마을버스 2개 노선을 송정역을 경유하도록 조정했다. 3월부터는 광주공항~지산유원지간 공항버스를 광주 송정역까지 연장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5월부터는 광주역-광천터미널-시청-송정역-혁신도시를 경유하는 고급직행좌석서비스도 신설할 방침이다.

광주송정역 주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2016년까지 223억원을 투입, 송정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하남산단 외곽도로와 송정1교-나주시계 도로확장 등도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송정역 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과 서남부권 버스노선 정류소 이전사업 등이 추진돼야 하지만 코레일 등과 부지 문제 등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 자체가 좌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서남부권 버스 정류소 이전 사업도 버스사업자측에서 KTX승객과 연계한 이용객이 미미할 것이라며 수익 저하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광 활성화 대책도 조만간 코레일과 협의를 통해 KTX 특별 관광열차 상품

을 운영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내면세점 유치, 불거리, 먹거리 등을 안내하는 스마트 앱, 홈페이지 서비스 등 단순한 프로그램만 나열해 놓고 있다. 이마저도 시행계획일 뿐이다.

수도권 역류 효과가 가장 우려되는 쇼핑 등 유통 분야 대책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다.

시는 'KTX개통에 따른 명품 브랜드 고객을 끌어들이겠다'며 지역대형 유통업체인 신세계, 롯데백화점은 문화,쇼핑 공간, 명품브랜드 공간을 확대 운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타지역에도 이미 넘쳐나는 백화점 명품코너 확충 계획만으로 방문객이 증가할 지는 미지수다.

광주지역 유통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에서 내놓은 KTX개통 대책이라며 예를 들어 광명에서 크게 히트한 가구 쇼핑몰 '이케이'나 아웃렛 등 대형 유통센터 건립 같은, 외지인을 끌어들이 수 있는 규모여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백화점에 명품 코너 몇 개 늘리면 그게 대책이냐"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거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울산지점 364-7557

